

‘나눔, 배움, 틈틈이, 키움으로 꿈 너머 꿈’을 향하는 광주부설초등학교

우리 교장의 유일한 국립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교장 심혜옥)에서는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선 학생교육으로, 세계 속의 주인공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광주교육대학교 학생 교육실습으로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부 지정 상설연구학교의 사명을 수행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다하고자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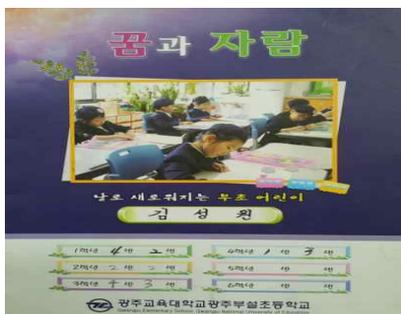
201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만족도 91.8%, 학부모 만족도 94.8%, 학교 급식 만족도 100%라는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 배려를 더하며 희망을 꿈꾸는 나눔 교육

광주부설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공동 담임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은 착한 부초 어린이 하루생활규범을 토대로 튼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 사랑과 감동이 묻어나는 효행 일기, 나를 되돌아보며 기록하는 꿈과 자람을 통해 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선생님께서 애국 훈화를 하시고,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월 학급회, 전교위원회, 전교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식물 이름 알기 대회, 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교재원을 조성하여 나무와 꽃, 동물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나(1학년), 우리 집(2학년), 우리 학교(3학년), 우리 교장(4학년), 우리 나라(5학년), 좌우명(6학년)의 학년별 주제를 달리하여 우리 자랑 발표 대회를 실시하였고,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학생간의 바람직한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9일에 친구 데이를 운영하여 친구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꿈과 자람>



<우리 자랑 발표 대회>



<숨 쉬는 교재원>

2. 배움 너머의 배움 교육

학생들이 학습방법의 학습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알차게 학습장을 정리하고, 전원이 성취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 학력 책임제를 운영하였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아침과 오후 협의회를 통해 토의·토론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생각이 쑥쑥 커가는 서술형 중심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있다.

우리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글 창제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어사랑 실천대회와 한글날 기념 대회를 운영하였으며,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 독서 시간을 토대로 우리 학교에서 발간한 ‘재미 솔솔 생각 솔솔’ 독서학습장에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기록하여 학기말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외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작은 반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매년 약 30회의 주제 중심 교과 연구와 열띤 수업협의회를 위해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12~2013 대학-부초 공동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전국단위 공개수업 발표회를 개최하여 약 700여명의 선생님들께 광주부초의 수업력을 뽐내었다. 그리고 광주지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요일 오후에 수학(1학기), 과학(2학기) 교과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학생생명존중 교육, 진로선택 등의 연수회 및 공개수업을 참관하는 등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학과 공개수업 협의회>



<광주부초 선생님>



<주제 중심 교과 연구>

3. 내 안의 나를 깨우는 틈옴 교육

학생들의 창의적인 자기 표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학습의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발표하고 공유한 광주부초 재능잔치,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급자랑, 학부모 재능 기부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숨은 과학적 원리를 다양한 탐구활동과 과학 체험부스 활동에 찾아봄으로써,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과학적 탐구심을 키워 미래를 상상하게 한 Science Festival을 열었다. 그리고 2012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국가유공자 가정 어린이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세계와 하나 되는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협력학교, 세계 친구들과 함께 꿈을 나누기 위해 미국 Vermont의 Bellows Free Academy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였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광주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영어 스피치, 영어 역할극, 영어 골든벨 등의 English Festival을 열었고, 지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사회 및 가치 탐구 활동에 여러 가지 지도를 활용하여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지도 그리기 대회를 3~6학년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실시하여 제8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 학교상을 수상하였다.

더불어 음악 선율을 통한 감성 교육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마음과 생각이 더 고와지고, 영혼을 깨우는 밝고 맑은 우리 노래 부르기 대회를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였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하여 배우는 재미있는 선율 창작 활동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였으며, 매월 셋째 주에 우리 것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민요 부르기를 하였다.



<광주부초 재능잔치>



<Science Festival>



<유네스코 협동학교>

4.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키움 교육

학생들의 건강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는 광주부초가족 어울마당이 녹색의 잔디밭에서 펼쳐졌다.

체육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조상의 얼을 되새기는 공기놀이, 탑 쌓기, 칠교놀이, 윷놀이와 같은 실내·외 민속놀이,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5~6학년을 대상으로 보진 수업을 하였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100% 만족도로 알 수 있듯이 영양 만점, 건강 급식을 위해 어머니의 정성이 묻어나는 학부모 급식봉사 동아리 운영하였고, 연중으로 건강한 내일을 위해 잔반 없는 학교 급식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학교 급식실의 문을 열면,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582명의 광주부초 학생들과 한명 한명씩 눈인사를 하면서 따뜻함을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제동행 밥상머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영양 만점 건강 급식>



<웃음 꽃 피는 체육 수업>